

존 오스왈트 박사, 이사야, 세션 14, 이사야. 28-29

© 존 오스왈트(John Oswalt)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John Oswalt입니다. 이사야서 28장과 29장 14회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선하심을 기뻐합니다. 주의 선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비, 눈, 안개, 회색, 구름, 태양, 따뜻한 바람, 푸른 잔디, 당신은 동일합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의도는 항상 선하며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슬처럼 변하기 쉬우나 주는 변하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당신과 삶을 알기를 바라는 당신의 깊은 소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가르치는 동안 나를 도와주세요. 듣고 상호 작용하는 모든 사람을 도우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Tyndale House 출판사에서 출판한 『1년 찬송가』라는 책을 수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을 위해 항상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찬송가가 쓰여진 바로 그 날인 2월 4일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프란시스 하버갈(Francis Havergal)의 All for Jesus였습니다. 그리고 평론가인 윌리엄 피터슨은 그녀가 Ardley House에 손님으로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시골 집인 것 같아요. Downton Abbey만큼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영국에 있는 시골 집에서 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이곳에 왔을 때 이 날이 끝나기 전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이 5일 동안 개종했거나 자신의
삶을 재헌납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밤새도록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이 나에게 와서 찬송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고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 내 존재의
구속받은 능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웨슬리안은 아닌 것 같은
주석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 행사가 있기 2주 전에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봉헌했습니다.

그녀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14일 후, 그녀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암튼 좋은 하루 되세요. 이사야 28~29장. Karen은 내가 첫 번째 장에 45분, 두 번째
장에 15분을 할애할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럼, 서두르기 전에 27장에 대한 질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하지 못한 것,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나요? 괜찮은. 카렌,
그들에겐 기회가 있었어. 좋아요.

우리는 이제 신뢰에 대한 이러한 교훈의 다음 섹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3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들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 어쩌면 결국 트럭 운전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국가들을 믿지 마십시오. 예.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으며 그들 중 몇 사람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어서 24~2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믿음으로 수업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서 주권적인 행위자이십니다. 그는 원자로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는 것은 국가들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분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는 13장부터 35장까지의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3~23, 24~27을 봤습니다. 이제 28~33을 보고 있습니다. 34~35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분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장이 특정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소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들은 좀 더 일반적이며,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특별한 부분으로 돌아가서 특히 시간이 지난 지금 유다와 유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신다면 6장은 기원전 739년으로 추정되며, 36~39장은 대략 기원전 701년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6장과 36장 사이의 이 장은 대략 이 연대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구절은 거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원전 72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지막 저항군이었던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는 혼자가 됩니다. 아시리아의 국경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시리아는 오늘날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군대를 생각하는 것처럼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군사 총독과 함께 군사 부대를 설립하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세금을 위해 그 곳을 흠뻑 적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722년 이후에도 유다는 블레셋을 제외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작은 나라들 중 실제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앓수르는 이집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지개 끝에 있는 금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안도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이런 능선이 있고, 그런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솟아오르는 능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속도로가 여기로 내려와서 해안을 가로질러 내려갑니다. 자, 여기 유다가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물론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가 함락된 722년 이후 이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한때 그들의 동맹이었던 유대 사람들 외에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시리아는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 두 나라. 암몬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아브는 거의 나가 있습니다.

에돔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마다 멸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기, 즉 겨울철에는 군대가 캠페인을 벌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데이빗이 곤경에 처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왜냐하면 그해 봄에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대를 파견하고 집에 머물면서 소녀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시리아인들은 블레셋인들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이곳 후방에 잠재적인 적이 있는 한 그들은 더 남쪽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입니다.

우리 뭐 할까? 그리고 28장부터 33장까지의 이 장들은 테러가 꾸준히 증가했던 대략 710년부터 701년까지의 기간에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치를 멋지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테러와 폭력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유대 지도층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735년쯤에 7장과 8장에서 예언했던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아하스여,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앗수르인들이 당신의 나라를 여기까지 홍수로 몰아넣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장들에서 반복되는 요소 중 하나는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히브리어 단어, 화입니다.

WHOA가 아니라 WOE입니다.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원회에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어표준역(English Standard Version)은 이 중 처음 네 개를 아(ah)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화(woe)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나는 그들이 왜 ah로 번역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에 대한 현대 영어 번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영어 번역은 아쉽지만 물론 구식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우리가 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성경에서 화라는 단어를 읽을 때 종종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슬픔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비난으로만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화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을 것이고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슬픔이 더 큰데, ESV 번역가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확신하지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장례식이 다가오고 있어요. 파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응, 응.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우리는 그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이에요. 예, 당신 앞에는 파멸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 앞에 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반복됩니다. 거기에 성경이 있다면 첫 번째는 28-1이고, 다음은 29-1이고, 세 번째는 29-15, 네 번째는 30-1, 다섯 번째는 31-1이고, 이것은 지금 ESV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비애로 돌아가는 곳이고, 마지막으로 ESV가 다시 ah로 돌아가는 곳은 33-1입니다. 32장을 시작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화가 납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또 다른 문제는 특히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무게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28-33에 붙인 제목은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음'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세션에서 매우 충실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다림의 동의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다. 예.

그 여자에게 금별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 이 비극의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해결책을 계시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장례식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개요입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다른 두 가지 사항입니다. 나는 당신이 불황의 특이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도 여전히 상당히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다음 주에는 좀 더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그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더욱 예리하게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특이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바라는 또 다른 사항은 판단과 희망 사이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28장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관심은 심판에 집중되고 소수는 희망에 집중됩니다.

그러나 33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희망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장에서는 희망이 거의 없으며 33세가 될 때쯤에는 판단력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할 점은, 불황의 구체성이 높아지는 점,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과 희망 사이의 비율 변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신속한 설문조사에 대해 질문 있으신가요? 좋아요, 그럼 오늘 밤에 봅시다. 28장 1절부터 6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포도주에 잡힌 자들의 풍부한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시드는 꽃이로다.

보라, 여호와께는 우박 폭풍 같고, 파괴하는 폭풍 같으며, 넘치는 물의 폭풍 같으니라 강하고 강한 이가 있느니라. 그분은 에브라임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손으로 땅에 던지셨습니다. 에브라임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밭에 짓밟히리라.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꽃은 쇠퇴하여 여름이 오기 전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을 것이다. 누구든지 보면 그것을 손에 쥐자마자 삼킨다. 이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유다는 남 왕국의 주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북 왕국의 주요 지파이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보면 그것이 암호이고 북쪽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특별한 예언은 722년 이전에 주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나머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것은 710년 이후 어느 시점에 유다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사야나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편집자는 왜 그 내용을 이 섹션으로 가져왔습니까? 그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 왕관은 왜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언덕 꼭대기에 왕관처럼 보이는 어떤 지역과 언덕 꼭대기에 총안 모양의 벽이 왕관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언덕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들이 파괴되었을 때 잔해만 남았습니다. 잔해를 치우기 위해 흙을 옮기는 사람과 함께 할 RG Letourneau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 위에 다음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산이 쌓이고, 결국 이런 모습이 된 거죠. 자, 여기 이 면류관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고 사마리아가 꼭대기를 향하고 있는 골짜기는 아주 아주 기름진 골짜기입니다. 이제 그들은 왜 심판을 받는가? 3절, 그들은 교만하며 무엇을 말합니까? 술 취한.

자랑스럽고 취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좋아, 자랑스러우면 마음껏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응, 술은 감당할 수 있어, 응.

바닥에 구르기 전까지는 말이죠. 당신은 당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당신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 중 가장 똑똑하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성취를 축하하세요. 네, 오늘 밤 뉴올리언스에 술 취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고 있는데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생겼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당신을 바보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교만과 술취함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왕관이라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화환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자랑스러운 화환. 아시다시피, 머리에 화환이나 갓을 이고 있는 파티 참석자는 다음 날 아침에 진흙 속에 짓밟혀 있습니다. 이사야는 너희가 쓰고 있는 왕관, 축하의 화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심판석에 앉으신 이에게 공의의 영이 되실 것이라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느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와 5절부터 6절까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대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두 크라운의 대조.

내 술 취한 오만의 면류관이요 여호와의 면류관으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왕이 되실 때 무엇을 주시나요? 정의와 힘. 예,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배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번역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Mishpat입니다. 영어 음역에서는 매우 우아하게 들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 자음, 즉 SH 자음, P 자음, 강조 T 자음은 순서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쇼페트(ShoPET) 판사는 사회의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Mishpat가 바로 그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것은 번역될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로 번역되었고, 또한 심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이 의도한 전부라고 생각하면 너무 좁다는 것이다.

정의의 정신은 단순히 법적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말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반복은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반복은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의도하신 대로 인간 사회와 창조 세계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 형평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적 형평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스파트을 당신의 삶에 데려오실 때, 그분은 거기에 의도된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실제로 술 취함은 오만함이 정면으로 맞서는 것처럼 바로 정면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술 취한 자들,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좋아, 계속해서 노력하자.

28.7-13 이들도 포도주에 취하며 독주로 비틀거리느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는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립니다. 그들은 포도주에 삼켜졌습니다.

그들은 독한 술을 마시고 비틀거린다. 그들은 비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판단하는 데 실수를 합니다.

테이블마다 더러운 토사물이 가득 차서 자리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그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설명할 것인가? 젓을 떼는 자, 젓을 먹은 자? 왜냐하면... 자,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카브 바카브 .

카브 바카브 . 그리고 다음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Leiv V'leiv 입니다 . Leiv V'leiv .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한 이후로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는 것은 아마도 옳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음절 일 것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음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훈과 노선이 아니다. 그건 너무 많은 말이에요.

그의 요점은 고린도전서의 바울처럼 여러분도 우유를 훨씬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복음의 고기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유밖에는 줄 수가 없어요.

카브 예요 바카브 . Leiv V'leiv .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전부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입술이 낫선 자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기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는 안식이라 하시니라 지친 이들에게 휴식을 주세요. 이것이 휴식이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 하리라 바카브 . 카브 바카브 . Leiv V'leiv .

Leiv V'leiv . 이는 그들이 가서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고 올무에 걸리고 잡힐까 함이니라. 와.

자,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알겠는데 답이 뭐야? 술에 취해 난잡하고 판단력이 없으면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좋아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에게 대략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모두 리더십입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귀족, 모두요. 그리고 그것이 리더십에 해당된다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9절을 보세요. 그들은 어둠 속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 술취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리더십의 실패로 인해 사람들은 삶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처럼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실망시킨 지도력에 대해 몹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취했습니까, 아니면 비유적으로 취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에 취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성취에 취해 있는가?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정도에 취해 있습니까? 나는 그것에 대답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이 둘 다일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의 술 취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술 취함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자기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더 이해하기 쉬운 유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이 자부심 같은 것이 아니었다면 제게는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는 그것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그것이 은유적인 술취함이라면 지도자들이 무엇에 취했는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은유적인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정말로 취했다면 그것은 정말 명백합니다.

그들은 투표하고 당신은 믿고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응, 응, 그 사람은 리더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해.

그는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응, 응, 응, 응. 11절.

이상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 이것이 아시리아 사람들이다. 아시리아어는 히브리어와 꽤 가까운 셈족 언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현실과 삶에 대한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삶의 현실을 가르치기 위해 이 사람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입이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랍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입술이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들이 단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잡으러 나온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9-11 테러 이후의 회개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사라졌는지가 나에게서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교회는 2주 동안 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죽였고 당신은 나를 보았습니다.

글쎄, 당신은 언제까지 물질주의 속에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연예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아갈 건가요? 그리고 당신의 자부심으로? 네 네 네 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예? 응, 응. 역사를 통해 그 예를 확실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가 테러리즘이나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순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이러한 모든 종류의 사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취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미국이 꽤 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파괴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면 당신이 그들을 파괴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설교는요.

좋아요. 이제 13절 끝에서 그들이 가서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고 올무에 걸리고 잡힐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6장에서 우리가 논의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물론 그분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사야 세대처럼 우리도 심판의 불길을 통과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우리는 당신이 주신 최고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교회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카브, 브카브. 라브, v'lav. 강한 물건.

좋아요. 이제 14절의 변화를 보십시오. 14 절에서 그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 예.

예. 우리는 에브라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 직감은 이사야나 그의 제자들 중 한 명인 그의 편집자가 722년 이전에 에브라임에게 했던 연설을 뽑아서 지금은 삼시간에 성취되었으며 예루살렘에 말하는 이 부분과 결합하기 위해 지금 여기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710 정도.

즉, 여러분, 15년 전에 이사야는 사마리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마리아는 파티 화환처럼 땅에 짓밟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무것도 들리나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전체 부분의 나머지 부분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 언급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처음 13절만이 북쪽 왕국에 대해 언급되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자, 제가 배경에서 언급한 조롱하는 사람은 구약성경에서 최악의 정죄하는 단어이며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것은 단지 광대일 뿐입니다. 바보야. 그런데 여기, 아니, 이 사람은 불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비웃는 사람, 즉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ی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롱하는 자와 조롱하는 자와 시편 1편에 너희가 앉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죄인과 함께 앉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악인과 함께 앉지 아니하시니 실례하노니 내가 사하리이다 옳습니다, 악인의 편에 서거나, 조롱하는 자와 함께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강한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15절, 그들은 마귀와 사망으로 더불어 언약한 것입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사야가 그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이집트와 계약을 맺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동의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가 그들을 조롱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저는 이 방향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데, 가나안인들 사이에 죽음이라고 불리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신화에서는 폭풍의 신 바알과 죽음의 신 모트가 싸운다. 그리고 초반에 못은 바알을 물리치고 그를 잡아먹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가서 못이 그를 다시 기침하게 해야 합니다. 아시죠, 언니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죽음의 신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집트 사람이건 이 신이건 어떤 경우에든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짓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군사력? 응. 무기가 충분하다면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돈? 바로 이거 야. 바로 이거 야. 물질주의? 예.

은행에 돈이 충분하고 집에 물건이 충분하다면 평화가 있을까요? 예. 제한적인 커뮤니티?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가요? 예. 그 사람은 우리 뒷주머니에 있어요.

우리 자신의 거짓말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무섭게도 여러 면에서 그것이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선함을 부인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이 놀라운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말을 거듭해서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그것이 없으면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만 무언가를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그것이 나를 소유합니다. 알고 보니 이건 선물이군요. 그게 없어지면 아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여기 여러분 중 누구에게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축복받은 나라에서 우리가 벼랑 끝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가 실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찬송가. 어제 찬송은 Spofford였습니다. 내 영혼은 괜찮습니다.

종종 그가 영국으로 가는 길에 네 딸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시카고 화재로 재산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영혼에 강물 같은 평화가 깃들고 바다의 파도 같은 슬픔이 밀려올 때. 우와. 그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도 여전히 노래할 수 있다. 아, 거기가 내가 있고 싶은 곳이야. 뭐라고요? 즉,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없이도 자신이 더 나아졌다고 솔직하게 느낄 수 있는 경우에만 무엇이든 안전하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16절에는 하나님의 해독제가 나옵니다.

너는 거짓으로 네 피난처를 만들었으나 나는 돌을 시온에 두었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니라. 믿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 마지막 줄을 잊어버린다.

주께서 이 모퉁잇돌, 즉 시험된 돌을 시온에 놓으셨음을 기억합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 지속되고, 다른 일이 일어나더라도 굳건히 서 있을 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 로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 피터슨 메시지를 또 받았어요. 예.

그는 신뢰하는 삶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 대문자로 썼습니다. 신뢰하는 삶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피터슨입니다.

응. 좋은. 좋아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저는 한 장의 4분의 3에 대해 50분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긴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으로 28장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물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다음 주 학습 가이드를 썼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그는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확장된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분은 3장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옷의 목록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5장에서 포도원에 대해 다시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아름답고 값비싼 포도원에서 생산된 것은 모두 쓴 포도뿐이었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방식에 따라 생활한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 주변에서 산산조각이 날 수 있지만, 당신은 그 초석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이 술취한 자들, 예루살렘의 이 조롱하는 자들은 그들의 머리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욕망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항상 요한¹서를 생각한다. 그는 그것을 너무 잘 포착합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과 이생의 자랑만 소유할 수 있다면 육신의 정욕, 육체적 쾌락, 안목의 정욕이 나에게 꼭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아니요. 기쁨을 빼앗기면, 물건을 빼앗기면, 모든 지위와 업적을 빼앗기면, 당신은 영원히 서 있고 나는 당신 안에 안전하며 여기 저기 저리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못 박으려고 하는 다른 곳. 그렇다면 그가 23~29절의 일곱 구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글썄, 내 생각엔 꽤 간단한 교훈인 것 같아.

여기 이 무식한 농부를 보세요. 그 사람은 수도에 있는 술취한 비웃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당신이 씨레질을 하고 쟁기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만큼 똑똑합니다. 그는 당신이 쟁기질하기 전에 씨앗을 심지 않는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똑똑합니다.

그는 당신이 더운 여름에 씨앗을 심지 않는다는 것을 알 만큼 똑똑합니다. 그는 세상이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만큼 똑똑합니다. 왜 당신들은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합니까? 응.

그리고 28절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분은 모락이 기이하시고 지혜가 탁월하시다.

응. 세상은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왜 그것이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우리 세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사야야,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괜찮은.

4분, 29장. Ariel, John Derr가 어제 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신의 도시일 수도 있다. 아리는 도시이고 엘은 신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곳은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다른 하나는 난로를 뜻하는 아리엘(Arie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분명합니다. 다윗이 진을 치고 있던 성읍은 해마다 더해지며 절기가 계속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의 집이 불탔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주무실 것인가? 그러니 그는 우리의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는 집이 불타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네가 낮아지리라. 당신은 땅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먼지 속에서 굵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유령의 목소리처럼 땅에서 나올 것입니다. 먼지 속에서 당신의 말이 속삭일 것입니다.

그것은 낮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듯이, 나는 너무 낮아서 벌레를 보려면 위를 올려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네 외국 대적의 무리는 티끌 같겠고 포악한 자의 무리는 지나가는 거 같을 것이니라 순식간에,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대비, 극적인 대비.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는 희망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절까지 이어집니다.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와 그와 그 산성을 쳐서 곤고케 하는 자는 다 꿈 같을 것이요 밤의 환상 같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일이 끝나면 여러분은 '오스왈드가 한 말 한두 가지가 기억난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것이 그들 중 하나가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해 봅시다. 심판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그분의 정제하는 불이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은 그의 마지막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그가 의도한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심판은 항상 회개와 정결함과 새롭게 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서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눈멀고 눈멀어 취하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나는 그것이 Mary Jo가 이전에 말한 것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틀거리되 독주로 마시지 말라 주께서 너희에게 깊은 잠의 영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에 다시 이사야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희망,

다가오는 구원, 다가오는 갱신에 대한 회색 그림을 제시할 때마다 그는 우리를 바로 현재로 데려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테니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 거라 말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으니 지옥처럼 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사야는 매번 여러분에게 다시 전화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함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련된 사람들을 위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이 모든 목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씀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면서 이것을 읽어 보라고 하면 그는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읽어보라고 하면 나는 읽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13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경외하는 것 곧 그들의 행위는 사람의 계명이라.

나는 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글썄요, 제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셨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 대학에 다녔고, 기독교 신학교에 다녔고, 윤리 선언문이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결과인가? 오, 나의 구주여, 나는 당신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구주이신 당신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 동작이 매우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을 추적해보면 이것은 습관과 자존심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알았어, 내 생각엔 거기서 멈출 것 같아.

우리는 다음 주인 2915년에 이 화를 다룰 것이며, 한 시간 안에 두 장 반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웃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훈계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 여기 이 축복받은 나라에서, 이 축복받은 작은 마을에서, 입으로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요.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너무 멍청해서 농부가 아는 것조차 배울 수 없는 술주정뱅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아멘.

정말 고마워.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에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John Oswalt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8장과 29장, 14회기입니다.